Initial Proposal

ICS822 Research Seminar II

제출자 : 박성근 (2019 입학) 지도교수: 류시하

**“팬데믹 상황에 대한 한국교회의 선교사역에서의 대처 방안”**

**마인드 맵**:

1. 내가 조사연구하고 싶은 주제들:

1) 내가 속한 두란노해외선교회는 소속선교사들을 잘 돌보고 있는 지

2) 팬데믹 상황에서 선교방법은 어떻게 변화해야 할 것인가

3) 한국출신 선교사들은 주로 어떤 방법으로 선교하고 있을까?

4) 한국 선교사들은 자신이 하고 있는 선교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고 있을까?

5) 온누리교회의 선교역사를 글로 정리해 본다.

1), 3), 4)는 너무 막연하고 연구한다 해도 그 결과가 큰 유익이 없을 것 같아 우선 순위에서 배제

5)는 온누리교회가 대형교회로서 그 자체로 선교단체도 설립하여 전통적인 모달리티 소달리티 이론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흥미가 있어서 자료를 모았지만 너무 방대하고 지금은 시간이 너무 촉박해서 나중에 해보기로 한다.

이번에는 팬데믹 상황에서 선교방법은 어떻게 하고 있는가 하는 데 초점을 맞추어 연구조사해 보기로 한다.

2. “팬데믹 상황에서 선교방법은 어떻게 변화해야 할 것인가”라는 주제를 선정한 이유

1) 팬데믹 상황은 인간 사이의 접촉을 혁명적인 수준으로 제한하게 만들어 선교는 접촉을 통해서 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있기에 이를 대단히 위축시키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이에 대처하여 선교를 지속할 수 있는 지를 여러 교회나 선교 단체가 어떻게 하고 있는 지를 조사하여 앞으로 나 자신은 무엇을 할지를 결정하고 또 이 글을 읽는 사람에게 도움을 주고자 한다.

2) 과연 이 들을 읽는 사람이 있을 것인가? 이 글을 읽는 사람이 없을 지라도 적어도 나 자신은 이를 활용하여 일본으로 가게 될 경우 적용할 수 있을 것이다.

3. 세부 목표:

안타깝게도 마인드 맵을 작성하여야 한다는 것을 이를 제출해야 하는 마지막 날인 2022년 2월 28에 실라부스를 다시 읽다가 깨닫게 되었다. 이전에는 마인드맵이라는 말은 무심히 넘기다가 오늘이야 이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만들어야 하는지를 구글에서 찾아 보게 되었다.

이미 팬데믹 상황에서 선교방법 변화에 대한 자료들은 RISS와 온누리교회 홈페이지에서 찾아서 요약을 해 놓았다.

앞으로는 마인드맵이 내가 계획을 세우고 이를 실행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고 마인드맵을 만드는 것을 도와주는 컴푸터 프로그램을 활용하는 법을 배워서 잘 활용해 보고자 한다.

이번 박사과정 전체 배우는 일에서 e-portfolio 만드는 방법과 마인드맵 만들기는 내 인생에세 가장 도움이 되는 도구로 생각되어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전 세계 기독교계는 2019년 가을 중국 우한에서 시작된 코로나 19 전염병으로 인하여 그 사역에 중대한 도전을 맞이 하고 있어서, 이 문제에 대하여 한국 기독교회는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 가를 조사해 보기로 하였다.

서론: 팬데믹 상황으로 인한 전통적 선교 방법의 문제와 새로운 방안의 필요성

일반 교회의 대처방법

대형교회가 세운 선교단체인 두란노해외선교회의 대처방안의 차이점

**“팬데믹 상황에 대한 한국교회의 선교사역에서의 대처 방안”**

**I. 들어가는 말**

**세계보건기구에서는 2020년3월 11일 팬데믹을 선언했다. http://health.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3/12/2020031201240.html**

팬데믹 상황은 사회를 비대면 사회로 만들었다.

전통적인 선교방법은 사람들을 만나서 전도하고 제자훈련하고 함께 예배 드리고 또 이런 단계에까지 오기 위한 접촉점으로서 긍휼사역 학교 사역 등을 하였다. 이런 모든 사역을 사람을 만나서 접촉하면서 이루어 지게 된다.

그런데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전영병으로 인하여 이러한 접촉이 어려워지게 되었다. 이승찬 목사는 그의 박사학위논문 『 팬데믹 시대의 한국교회 올라인(All-line) 사역 방법론에 대한 연구 – 충신교회 올라인(All-line) 사역을 중심으로 –』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지금의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지난 24시간 동안에 전 세계적으로 124만 명이 걸렸고 누적 확진자는 4억2천만 명이며 죽은 사람이 5,890,312 명이라고 한다. 주) covid19.who.int 2022. 2. 23 현재) 특별히 코로나 바이러스는 치사율은 낮지만 전파격이 높고 무증상 상태에서도 전파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전의 전염병에 비해 훨씬 더 위험한 상황이다.

전례없이 빠른 속도로 백신이 개발되었지만 이 백신이 잘 듣지 않는 변형 바이러스가 등장해서 백신의 효과를 떨어 뜨리고 있는 상황이다. 이제 미국이나 영국 같은 나라에서는 코로나로 인하여 격리 정책이 국가 경제에 미치는 타격이 너무 커서 감염 위험이 있어도 격리정책을 완화하는 추세 있으나 이전처럼 사람들끼리 자유롭게 걱정 없이 만날 수 있는 세월은 다시 오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승찬 2. 12

“그런데 이러한 교회의 상황 속에서 기독교계 안에서도 두 가지 목소리로 나누어지기 시작하였다. 첫째는 다시 과거로 돌아가야만 한다는 주장과 둘째는 과거로 돌아갈 수 없다는 주장이었다. 즉, 전자는 하루 속히 코로나가 종식되기만을 바라며 온 성도들이 함께 교회에 모여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생각이며 후자는 코로나의 종식보다는 코로나와 함께 살아가야하는 상황을 인정한 채 교회가 모이는 교회에서 흩어지는 교회로의 전환이 더욱 필요하다는 견해를 갖고 있다. 이승찬 2. 12

많은 선교사들이 한국으로 철수하는 일도 벌어지게 되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한 쪽의 문으로 닫으시면 다른 쪽으로 열어 놓으신다는 말이 있듯이 이러한 상황을 돌파할 방법이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이것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

II. 기독교 역사로부터 배우는 교훈

기독교 역사에 보면 역병으로 기독교의 전파에 큰 영향을 받은 사건들이 있다. 그 당시 기독교인들이 어떻게 행동했는지를 조사해 보면 오늘날의 상황에서도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다. 최원진 교수는 학술지 “복음과 선교” 2020년에 실린 그의 글 ‘COVID-19’ 상황에서 한국교회의 선교’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기독교 역사를 보면 초대교회 당시에도 두 번의 넓은 지역에 유행한 역병이 있었다. AD 165년에 발병해 15년간 지속된 ‘안토니우스 역병”과 AD 249년에 시작되어 262년까지 지속된 ‘키프리아누스 역병”이 그것이다. “안토니우스 역병’으로 인해 당시 로마 인구의 1/4, 많게는 1/3이ㅣ 사망했으며, ,키푸리아누스 역병’으로 로마시에서만 하루에 5,000명이 사망했다고 한다.” \*\*Rodney Stark, The Risk of Chritianity, 손현선 옮김, 『기독교의 발흥』, 서울: 좋은씨앗, 2016, 120-121. 최원진, “COVID-19 상황에서 한국교회 영성”211P.에서 재인용

이때 이교도들은 도피만이 유일한 해답이라고 생각했다. 알렉산드리아의 감독이었던 디오니시우스는 “이교도들은 전염병이 처음 발생하자 아픈 자들을 내쫓았고, 가장 가까운 자부터 도망쳤으며 병자가 죽기도 전에 거리에 내다버리고 매장하지 않은 시신을 흙처럼 취급했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함으로써 치명적인 질병의 확산과 점염을 피하고자 했으나 이내 아무리 몸부림쳐도 도망치기 어려움을 깨달았습니다”라고 말한다. \*\*Rodney Stark, The Risk of Chritianity, 손현선 옮김, 『기독교의 발흥』, 서울: 좋은씨앗, 2016, 120-121. 최원진, “COVID-19 상황에서 한국교회 영성”211P.에서 재인용

그러나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 보살핌과 배려하는 사랑으로 질병을 극복해야 한다고 믿고, 로마제국의 조직적인 박해와 핍박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의 사랑을 보여 주었다, 즉, 그리스도인들은 선으로 악을 이기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자신들을 핍박하는 원수들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했다. 세상이 감히 흉내낼 수 없고 감당할 수 없는 사랑을 실천한 것이다. 그래서 이들 초대교회 그리스도인 공동체에 붙여진 영광스러운 호칭이 바로 “위험을 무릅쓰는 자”라는 뜻을 가진 ’파라볼라노이’였다. \*\*이상규, 『헬라 로마적 상황에서의 기독교』(서울: 한들출판사, 2006), 105

최원진, “COVID-19 상황에서 한국교회 영성”211P.에서 재인용

중세시대에는 흑사병으로 인해 당시 사회가 붕괴되고 교회의 절대적인 권위가 무너지게 된다. 그러나 당시 (수도사들인) 선교사들은 가난간 마을과 오지를 다이며 영혼과 육체의 구세주인 그리스도만이 가장 고귀한 의사이며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질병에서 구원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메시지를 전하기 시작했다. …”그 결과 사람들은 세상에서 추구할 수 없는 안정을 수도원에서 찾고자 했다”고 주장한다. \*\*최덕성, “’코로나시대’에 돌아보다… 중세교회의 전염병 대처”, 『기독일보』, 2020년 2월 13일. 최원진, “COVID-19 상황에서 한국교회 영성”212P.에서 재인용

사람들이 세속적인 교회를 떠나 하나님수도원으로 들어가 개인적 영성을 추구하게 되면서 교회 공동체는 점점 그 순수성을 잃게 되었다.

이와 같은 역사는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교훈이 있다. 이러한 코로나 팬데믹 상황이야 말로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할 기회가 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문화와 역사적이 상황이 많이 달라졌기 때문에 무작정 옛날 시대에 하던 방식을 그대로 따라 할 수는 없게 되었다. 이재는 코로나에 감염된 사람과는 격리하도록 정부가 강제조치를 하고있기 때문에 전염병으로 고통당하고 있는 사람들을 옛날 방식으로 돌볼 수 있는 방법은 원천적으로 차단되고 있기 때문이다. 새 시대 새 문화에 맞는 새로운 방법을 찾아보아야 하는 시대가 된 것이다.

III. 코로나 상황에 대한 일반 교회의 태도 변화

1. 선교에 있어서 미디어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제고

그동안 교회의 선교는 사람이 직접 나서서 선교대상들을 만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실제적으로 모여서 제자훈련 등 리더십 훈련을 하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 왔다. 물론 그동안에도 방송선교, 문서 선교, 유투브 등을 통한 선교활동이 있어 왔지만 어디까지나 직접 접촉하여 행하는 복음전도나 교회개척의 보조수단정도로 생각해 와서 그것을 열심히 행하는 교회나 선교단체들이 있어왔지만 그런 일에 관심을 별로 가지지 않고 직접 접촉하여 행하는 일에 전념했던 사역자들도 많이 있다. 이에 대하여 김은혜 교수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이렇게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우리는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이 우리를 미디어로 그리고 인터페이스로 창조하셨음을 기억해야 한다. 시대의 격변기에는 기존 기술과 환경에 익숙해 있는 세대에게는 늘 새로운 기술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이 일어난다. 하지만 우리는 종교개혁이 미디어 혁명이었다는 사실을 상기하는 것이 필요하다. 16세기 루터의 비텐베르크성당 선언문이 남달랐던 것은 개혁에 대한 루터의 열망도 있었지만, 그의 ‘말’과 의지를 전달할 인쇄 미디어가 준비되어 있었고, 그 미디어가 그의 말을 더욱 더 영향력 있게, 더 넓고 효과적으로 ‘연장’해준 것이다. 사실 기술 시대에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의 미디어 가 될 때 그것은 가장 영향력 있는 복음전파가 되는 것이고 우리 몸으로 산제 사를 드리는 것이다. 개신교는 ‘말씀(words)의 종교’이고 특별히 ‘말씀의 선포’ 에 대한 중요한 개혁교회의 전통 위에 세워졌다. 따라서 개신교회의 신학적 전 통은 다양한 소통을 위한 미디어 발전을 통해서 교회의 본질적 사명을 감당해 왔다.” 16) 16) 포스트코로나와 목회연구학회, 김은혜, “언택트 시대의 관계적 목회 가능성/콘택트로서 언택트에 대한 신학적 성찰”, 『비대면 시대의 ‘새로운’교회를 상상하다』, 20-21쪽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미디어로 그리고 인터페이스로 창조하셨음을 기억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미디어는 ‘매개체, 매체’라고 불리는데 ‘둘 사이에서 어떤 일을 하는 구실을 하는 물건’을 뜻하며17) 인터페이스는 ‘좁게는 컴퓨터 및 소프트웨어 조작 방식을 말하며 넓게는 서로 다른 두 물체 사이 에서 상호간 대화하는 방법’을 의미한다. “18) 여기서 미디어와 인터페이스의 공통점은 ‘중간매개체’ 역할을 하는 데 있다.이승찬, 12. 22 교회는 기술 혁신 발전을 통한 인간의 삶에 주어진 ‘공간과 시간의 확대’라는 개념 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 23) 이승찬, 14. 24

2. 온라인 사역을 위한 예산 집중편성 및 콘텐츠 개발” 이승찬 25

선교에 있어서 미디어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제고됨으로써 교회는 미디어를 통한 사역을 위하여 더 많은 예산을 편성하고 콘텐츠 개발을 하게 되었다. 이승찬 목사는 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2002년 교황청 문서에 “교회와 인터넷”(The Church and Internet)이라는 제목으로 글을 발표했다. “사이버 공간의 가상현실은 사람들의 실제 공동체, 성례전과 예배의 성육신된 실제 혹은 직접적이고 즉각적인 복음의 선포 등을 대신할 수 없다.” 아울러 사람들을 사이버 공간으로부터 “실제 공동체로 이끌어야 한다 .”27) 위 발표문은 ‘사이버 공간’에 대한 한계를 지적하고 있으며 교회의 본질은 실제 공동체로 모이는 데 있음을 말해준다. 27) 테레사 베르거, 『예배, 디지털세상을 만나다』 , 101쪽.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황 프란치스코는 인터넷 기술을 포교 및 교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활용하였는데 위의 발표를 무색하게 할 만큼 매우 혁신적이고 과감한 도전이었다. 교황청 유튜브 채널 ‘포프 앱’(Pope App)은 교황의 모든 미사 집례를 9개 언어로 전 세계에 생중계하는데 2,700만 명 이상의 팔로워를 보유하고 있다. 또한 교황과 직접 채팅할 수 있는 메신저 ‘미시오봇’(missiobot)도 운영하는데 이 는 실제로 교황이 답변하는 것은 아니지만 프로그래밍된 로봇에 의해 교황의 사진 이 담겨진 화면을 통해 축복의 말씀을 전한다. 28) 28) 포스트코로나와 목회연구학회, 윤영훈, “온라인 공간에 실험하는 새로운 교회”, 『비대면 시대의 ‘새로운’ 교회를 상상하다』 , 39쪽.

이재훈 목사가 시무하고 있는 온누리교회는 코로나19가 터지자 ‘퐁당 (fondant)’이라는 국내 최초 기독 OTT 플랫폼을 만들어 화제가 되었다. OTT는 ‘Over The Top의 약자로 인터넷을 통하여 각종 동영상을 스트리밍으로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드라마, 영화, 유투브 등을 통한 동영상 서비스를 말한다. 특히 유투브를 통한 서비스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중요하게 되었다. 기존의 동영상 서비스는 방송을 통해서 이루어졌는데, 이는 방송국이 편성한 대로 방송하는 시간에 맞추어 시청자가 수동적으로 보느냐 보지 않느냐를 선택할 뿐이었는데, OTT서비스는 시청자가 언제든지 본인이 보고 싶을 때에 보고 싶은 내용을 결정할 수 있게 되어서 이와 같은 미디에 사용에 있어서 혁명적인 변화가 일어나게 된 것이다. 또한 유투브를 통해서 큰 비용을 들이지 아니하고 개인이나 각종 단체들이 동영상의 제작하여 제공할 수 있게 된 것도 완전히 새로운 세상이 발전하도록 된 것이다. 한국은 인터넷이 제일 발달한 나라가 되고 대다수의 국민들이 이러한 변화에 익숙해지고 이를 잘 활용할 수 있게 됨으로 인하여 전 세계에 음악이나 드라마 영화 먹방 등을 통하여 한국 문화를 전파할 수 있게 되었던 것이다. 이와 같이 하여 기존의 가장 선진국이라 할 수 있는 미국이나 유럽의 여러 나라들이 한국의 이런 문화의 영향을 받게 된 신기한 상황에 이르게 된 것이다. 이제 이와 같은 OTT의 활용은 교회에서도 점차 그 사용을 활발히 연구하고 있는 것이다.

[“C. 현실적인 장애물들” 이승찬 27

1. 온라인 사역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 결여

2. 온라인 사역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 전환의 어려움

28

3. 온라인 사역 강화로 주일 성수 신앙회복에 대한 염려 30]

IV. 학자들의 코로나 상황 대처방안 제안들

그렇다면 현재의 코로나 상황에 대하여 학자들은 어떤 제안을 하고 있는가? 주안대학원대학교의 조해룡 교수는 학술지 “선교신학” 에 실린 글에서 “코로나19는 기존 교회 환경을 과학 기술이 주도하는 ‘사이언스테크놀로지(scientology)’환경으로 바꾸고 기술사회의 산물 을 활용하도록 도전한다.”고 하였다. 주) 조재룡, [코로나 팬데믹 상황 속에서 선교적 교회의 교회론적 변화와 선교적 대응: 한국 교회 적용을 중심으로](http://www.riss.kr/search/detail/DetailView.do?p_mat_type=1a0202e37d52c72d&control_no=c78a182fdaba8f34b7998d826d417196&keyword=%ED%8C%AC%EB%8D%B0%EB%AF%B9%20%20%EC%84%A0%EA%B5%90), [조해룡](http://www.riss.kr/search/Search.do?isDetailSearch=Y&searchGubun=true&queryText=znCreator,%EC%A1%B0%ED%95%B4%EB%A3%A1&colName=re_a_kor) [한국선교신학회](http://www.riss.kr/search/Search.do?isDetailSearch=Y&searchGubun=true&queryText=znPublisher,%ED%95%9C%EA%B5%AD%EC%84%A0%EA%B5%90%EC%8B%A0%ED%95%99%ED%9A%8C&colName=re_a_kor) 2021 [선교신학](http://www.riss.kr/search/detail/DetailView.do?p_mat_type=3a11008f85f7c51d&control_no=ccdb0515e7cd80ae) [Vol.62 No.-](http://www.riss.kr/search/detail/DetailView.do?p_mat_type=3a11008f85f7c51d&control_no=ccdb0515e7cd80ae&v_control_no=18b29ba8d183bf85) 291. 14

최원진 교수의 주장을 중심으로 기술해 보고자 한다. 15.

1. “신앙의 사유화와 개인주의에서 벗어나 신앙의 본질과 교회의 공동체성을 회복해야 한다. “

\*\*개인의 경건을 중심으로 한 신앙생활에서 벗어나 교회의 공동체성을 회복하게 해야 한다. \*\*

비대면 예배가 익숙하게 되면서 주일에 꼭 예배당에 나가서 예배에 참여하지 않고 집에서 인터넷으로 예배드리고 헌금을 온라인으로 하는 것이 익숙하게 되면 신앙이 신자 개인과 하나님과의 수직적 관계로 만족하게 되는 경향이 생길 수 있다. 현장예배로의 복귀, 코로나 이전으로의 복귀보다 중요한 것은 성경적인 예배 회복을 통한 교회의 공동체성을 회복하는 것이다.

2. “새로운 선교의 장인 가상공간을 활용해야 한다.” 최원진 19

통계에 따르면 전 세계 78억 인구 중 핸드폰 사용자가 약 52억명(66%), 인터넷 인터넷 사용자가 46억명(59%)이다. 그 중에서 16세에서 64세 연령대의 76%는 코로나 이후 인터넸을 더 많이 사용하고 있다. \*\* Simon Kemp, “Digital Around the World in April 2020.” https://wearesocial.com/ blog/2020/04/digital-around-the-world-in-april-2020#.

한국의 경우 최근에는 유투브 조회수가 1억뷰가 넘는 교회까지도 등장하면서, 유투브를 포함한 온라인 매체와 가상공간은 향후 한국 교회 최대의 선교지가 될 것이다. \*\* 한국기독신문, “한국교회 1억뷰 교회는?: 한국교회 유튜브 최다 조회수는 ‘찬양’콘텐 츠”, http://www.kcnp.com/news/view.php?no=5335. 한국기독신문, “한국교회 1억뷰 교회는?: 한국교회 유튜브 최다 조회수는 ‘찬양’콘텐츠”, <http://www.kcnp.com/news/view.php?no=5335>.

한국리서치의 조사에 따르면, ’COVID-19’ 이후 비대면 물건구입은 코로나 이후에도 지속될 것이지만, 온라인 강의 예배는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응답한 사람이 훨씬 많았다. \*\*

한국리서치, “[코로나19] 6차 인식조사(상황 인식, 언택트 사회 전망 등)”, https:// hrcopinion.co.kr/archives/15498. “그러나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간다고 하더라도 지금 한국교회가 경험한 모든 것을 원점 돌려 놓지는 못할 것이다. 오히려 코로나로 인해 개인적인 시간이 많아지고, 비대면 업무가 점점 활성화되었기 대문에 이런 추세는 앞으로 더욱 심화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교회는 기존의 전통적인 방식에만 머물러 있을 것이 아니라 과감하게 가상의 공간까지도 복음 전도의 수단으로 활용해야 한다. ” 최원진, 222. 20

이에 대한 더 많은 신학적 논의가 필요하다. 이로 인해 야기될 많는 위험성이 있기 때문이다. “인간이 만일 지속적으로 자신들의 감정, 필요, 욕구 등을 가상공간에서 찾으려고 하다보면 이것이 또 하나의 종교가 될 수 있다. 그리고 이것이 교회를 대체하는 또 다른 신앙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 뉴스미션, “서구 기독교의 네 가지 위기: 서구기독교의 위기와 동양적 정황 속의 위기 이해”, <http://www.goodnews1.com/news/news_view.asp?seq=10197>. 최원진 224.에서 재인용

“가장 논란이 되는 것은 온라인 예배가 참된 교회공동체가 될 수 있는가 하는 것이다. 이는 육체적 현존이 없는 교회를 참된 교회라고 보지 않는 경향 때문이다.” \*\*최원진, 223. 21, 박해정,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온라인 예배에 관한 고찰”, 189-193.

“그러나 한국교회는 단순히 온라인 예배의 위험요소나 문제점 때문에 수동적이고 부정적인 태도만을 취하고 있어서는 안 된다. 만약 그렇게 되면 사람들이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가상의 공간을 사탄에게 모두 내어주게 될 것이다. 한국교회는 온라인 예배가 초래할 수 있는 여러 위험요소를 극복할 수 있는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 최원진 224. 22

그런데 교회가 콘텐츠 제작 이전에 교회가 심사숙고해야 할 부분이 있다.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먼저 세상 속에 비춰진 교회의 이미지를 긍정적 이미지로 바꾸는 일이 선행되어야 한다. 정은표 교수는 ‘교회 이미지는 교회가 가지 고 있는 어떤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 갖고 있는 것으로, 교회이미지는 교회가 행하는 어떤 것이 아니라 교회의 행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사람들의 반응’이 라고 말하였다.113) 113) 김형길, “교회이미지 개선을 위한 마케팅커뮤니케이션전략에 관한 연구”, 『로 고스경영연구, 12(2)』, 167쪽.

또한 디지털 사역이 어떤 일방적인 소통이 아닌 세상과의 쌍방향 소통 창구라는 인식이 필요하다. 한국 교회가 현재 위기 가운데 놓인 이유도 세상과 이웃과의 소통이 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교회는 하나님 나라와 세상 사이의 소통의 창구로서 그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 그동안 한국 교회 안에 존재하는 선교 패러다임이 여전히 존재하는데 그것은 선포(proclamation) 중심의 독백적인 (monological) 선교이다. 114) 이러한 독백적이고 일방적인 선포중심의 메시지는 비 그리스도인들에게 전달되기 쉽지 않으며 오히려 교회의 고립을 더 초래할 위험성도 내포한다.

114) 이병옥, “이웃과 소통하기 위한 새로운 선교패러다임의 모색 : 선포중심의 독백적 선교에서 경청중심의 대화적 선교로 전환”, 『선교신학 제 54집』, 212쪽.

V. 교회의 새로운 패러다임” 이승찬 46. 56

학자들의 제안을 살펴 보았으니 실제적으로 교회들은 팬데믹 상황에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를 알아보겠다. 이 부분은 대한예수교 장로회(통합) 소속 충신교회의 부목사인 이승찬의 박사논문 『 팬데믹 시대의 한국교회 올라인(All-line) 사역 방법론에 대한 연구 – 충신교회 올라인(All-line) 사역을 중심으로 –』 장로회신학대학교 목회전문대학원 2021.을 중심으로 살펴 보기로 한다.

1. 교회가 온라인 예배를 제공하게 됨

이승찬 목사는 교회가 제공하는 온라인에 예배에 참석하는 형태의 신앙생활의 방식을 온라인교회라 표현하고 있다. 주) 이승찬 46

목회데이터연구소와 한국기독교언론포럼,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은 2021년 8월 13일 ‘코로나19 이후 한국 교회 변화 추적 조사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전국 성인 개신교인 1000명과 예장통합 목회자 891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예배와 코로 나19 시대 신앙생활 전반에 관해 조사하였는데 이와 관련하여 현재 교회 출석 교 인 중 3명 중 1명이 온라인 예배에 참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나안 교인을 제외한 교회 출석 성도 755명 중 48.6%가 출석교회 현장예배에 참석하였고 31.1% 가 출석교회 온라인 예배에 참석했다고 응답했다. 온라인 예배 참여자 중 85.2%가 실시간 영상으로 예배를 드렸으며, 가나안 성도 중 35.7%가 타교회 온라인 예배, 설교 시청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는데 이는 2020년 11월 조사 때보다 15%가 늘어 난 수치이다. 117) 코로나19 이후 상당히 많은 수의 성도들이 자신만의 독립된 공간 에서 온라인 예배에 참석하고 있다는 것을 말해준다. 특별히 그동안 교회를 떠나 방황했던 가나안 성도들의 예배 참여가 조금씩 많아지고 있다는 통계는 앞으로 온 라인 교회가 온라인 성도들을 위해서 존재해야 할 당위성을 보여준다. 117) <http://www.newsnjoy.or.kr/news/articleView.html?idxno=303222>

2. 가상현실 교회 – 메타버스 교회”의 출현 이승찬 48. 58

이제 성도들이 교회가 제공하는 동영상 예배 진행에 시청하는 방법이 온라인 예배라고 한다면 이제는 인터넷으로 제공하는 가상 현실 세계에 교회의 모습을 꾸며 놓고 예배 참여자도 자신의 대리인이라고 할 수 있는 아바타를 통하여 그 가상현실의 교회에 참석하여 활동하는 형식의 포맷을 가진 교회의 형태가 생겨났다. 이는 매트릭스나 아바타 같은 영화에서 가상현실의 세계에 자신이 직접 또는 아바타를 통해 들어가서 활동하는데 현실의 세계와 아주 비슷해서 주체가 되는 인간이 거기에 몰입하게 되면 현실 세계에 있는 것인지 가상의 세계에 있는 것인지 분별이 되지 않을 정도가 되는 그런 세계를 메타버스의 세계라고 부르게 되었다. 이승찬은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페이스북의 창시자 마크 저커버그(Mark Zuckerberg)는 2021년 7월 25일 메타버스에서 첫 번째 교회인 힐송 아틀란타 교회를 개척하였다는 보도가 있었 다. 126) 그는 메타버스 안에서 자녀들의 신앙을 가르치는 날이 올 것이라 했는데 과연 그가 신앙적 순수성에서 교회를 개척한 것이 아니라 돈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다. 그만큼 앞으로 메타버스는 교회 안에서도 엄청난 파장을 불러일으킬 것으 로 본다. 메타버스 교회의 시작은 2004년 영국 감리교회와 성공회 런던 주교의 후원 으로 만들어진 ‘바보의 교회(Church of Fools)’로 사이몬 젠킨스(Simon Jenkins) 123) 테레사 베르거, 『예배, 디지털세상을 만나다』 , 102쪽. 124) https://namu.wiki/w/다마스커스TV 125) 김성연, 『복음과 상황 371호, 2021.10』 126) 선양욱, “메타버스에서 신앙교육을?”, 『아이굿뉴스, 2021.10.27』 - 49 - 에 의해 4개월 동안 시험적으로 진행된 것에서부터 볼 수 있다. 127) 개척 당시 웹 사이트로 교회가 시작되었고 그리스도인들에게 유익한 신앙 정보를 제공했으며 온라인 라디오 방송을 운영하다가 영상 서비스 및 온라인 게임 포털 사이트인 ‘쇼크 웨이브’(shockwave)란 가상공간에서 예배를 제공하였다. 교회는 디지털 문화 사역 에 최적화된 사역을 위해 그래픽 디자인 전문가, 사진작가, 소프트웨어 및 서버 코드 전문가와 협력하여 가상공간 속 교회를 세워갔다. 온라인 공간을 전통적인 교회 모양으로 꾸민 후 참여자들은 아바타를 통해 교회 예배에 참석하였다. 128) 무엇보다 교회의 강점으로 소통적인 측면을 강화하기 위해 ‘게시판, 채팅, 인스턴트 메시지 및 여러 루트의 방문자 피드백을 통하여 쌍방향 간 소통을 이루는 온라인 커뮤니 티’를 구성하고 있다. 놀라운 것은 예배가 시작된 지 첫 2주간은 8천여 명이나 온라인 서비스에 접속하였고, 최대 많이 참석할 때에는 4만 명까지 접속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서 비스에 접속한 이들의 39%는 정기적으로 교회에 출석하지 않는 이들이었고 응답 자의 50%가 30대 이하였으며, 60%가 남성이었다. 즉, 신앙은 갖고 있지만 교회에 나가지 않는 ‘가나안 성도’들의 참여가 활발했다는 증거이다. 이것은 온라인 교회 가 새로운 비신자들을 향한 접촉점인 동시에 여러 이유 때문에 교회를 떠나버린 이들에게 신앙적 도움을 주었다고 볼 수 있다. 129)

126) 선양욱, “메타버스에서 신앙교육을?”, 『아이굿뉴스, 2021.10.27』

127) http://simonjenkins.com/projects/page/church\_of\_fools

128) 윤영훈, “포스트코로나 시대 온라인 교회의 가능성에 대한 연구”, 『대학과 선 교 | 제45집』, 212쪽.

129) 김승환, “온라인 교회와 디지털 신앙”, 『기독교사상 741, 2020.9』 , 41-42쪽

2012년부터는 페이스북으로 이동을 하여 좀 더 많은 이들과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고자 했지만 2015년 마지막 서비스를 제공하였고 현재는 페이스북 페이지와 트위터 계정을 통해서만 커뮤니티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승찬 49. 59

최근 한국에서도 가상세계 안에서 이루어지는 사역들이 나타나고 있다. 한국미디어선교회는 가상현실 속에서 강의를 들을 수 있도록 ‘바이블 아카데미’를 오픈하였다. 수강생들은 자신의 아바타를 이용하여 가상공간 속에서 여러 강의를 듣고 모임에 참여할 수 있으며 음성, 텍스트 및 화상회의로 서로 소통할 수 있다. 131) 이어 한국미디어선교회는 기독교 온라인 전용 플랫폼 계발과 다양한 VR 콘텐츠 제작에 집중하고 있으며 가상공간 속 선교지에 보낼 ‘스마트 선교사’ 양성에 힘쓰고 있다.

그 외에도 소강석 목사가 시무하고 있는 새에덴교회는 지난 6월 23일 한국 전 참전용사 보은 행사 시 6.25 전쟁 당시 참전했던 군인들의 젊었을 때 모습을 가상공간에 구현한 후 기념 메달을 걸어주는 메타버스 기술을 선보이기도 했다. 132) 또한 한국대학생 선교회 CCC도 지난 6월 28일부터 3일간 가상공간 플랫폼인 ‘게더타운’에서 CCC 수련회 공간을 만들어 운영하였다. 가상공간 안에는 그동안 열렸 던 수련회 이미지 사진들이 전시되었고 시공간을 초월하여 수많은 학생들이 참여하는 시간이 되었다. 이승찬 51. 61

“3. 온라인 교회의 한계와 문제점” 이승찬 51. 61

과연 교회는 온라인/메타버스 교회에 대하여 어떻게 바라보아야 할 것인가? 이제 대하여 이승찬은 다음과 같이 진술하고 있다. 이승찬 51.

물론 온라인 교회와 메타버스교회의 출현에 따라 교회 밖을 떠돌던 가나안 성도 및 안개 성도들을 위한 새로운 예배와 선교의 장이 된 긍정적인 요소들도 있지만 기존 성도들이 가져왔던 실제적인 대면으로서의 만남의 기회를 점차 잃어버리는 것은 아닌가? 라는 질문을 던져보게 된다. 아날로그적 오프라인 만남이 빠져버린 교회의 모습 속에서 교회의 중요한 본질인 성도들의 **실제적인 대면으로서의 만남을 점차 잃어버리는 것은 아닌가?** 생각해 보아야 한다.

교계에서도 신학자들 사이에선 온라인 및 메타버스 교회에 대해 여러 가지 의견들을 내놓고 있다. 실천신학대학원대학교 목회사회학 **조성돈 교수**는 “예배 형 태는 시대와 문화에 따라 변화했듯이 예배 가운데 최신의 기술을 접목하는 것을 두고 **옳고 그름 여부를 따지기보다 어떻게 수용하며 활용**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133) 또한 사도 바울이 이스라엘을 넘어 온 열 방으로 나아가 복음의 확산이 나타났던 것처럼 메타버스를 통해 전 세계의 복음화를 기대해볼 수 있다고 하였다.134)

130) 국민일보, 2018.2.19. 기사 발췌. 131) “새로운 세계 메타버스, 위기인가 기회인가”, 『아이굿뉴스, 2021.6.28』 132) 위 기사 내용 발췌. - 52 -

하지만 온라인 및 메타버스 교회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김선일** 웨스트민스터신학대학원대학교 실천신학 교수는 **기술이 거듭 발전할수록 교회는 성도들 간의 교제를 더욱 세워가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한일장신대학교 명예총장인 **정장복 교수**는 “기독교의 진리가 가상현실로 대체될 수 있는가?”란 본질적인 질문을 던지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성육신하여 이 땅에 오심을 예를 들어 온라인과 메타버스가 이 시대에 필요한 효과적인 **소통의 도구로 활용될 수는 있지만 그것이 완전한 현실로 받아들여질 수 없음**을 지적하였다. 135) 이승찬 52. 62

생각컨대, 지금까지 오프라인의 전통적인 교회의 존재 방식 안에서 시간적 공간적 제약으로 교회에 출석하지 않고 있던 성도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를 돕기 위한 방식으로 온라인교회 또는 메타버스 교회 방식이 어느 정도의 기능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의 존재를 전적으로 부정할 수는 없겠지만, 이들이 신앙생활을 유지하도록 하는데 주류의 흐름이 되는 것은 문제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전통적인 오프라인 교회를 주류로 하면서 보완하는 선에서 온라인교회나 메타버스 교회의 기능을 인정하고 또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고 본다. 신앙생활에서는 하나님과의 관계도 중요하지만 성도들끼리의 관계도 중요하고 이는 실제적 접촉이 없이 가상 공간에서의 관계로는 이루기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이다.

[“4. 시대적 요청에 따른 교회의 변화” 이승찬 52. 62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 세계에 존재하는 교회는 온라인 교회와 메타버스 시대가 도래할 경우 ‘과연 어떠한 모습으로 온라인과 가상의 세계 속에 존재해야 하며 어떠한 방법으로 사람들에게 다가갈 수 있느냐?’ 라는 매우 중요한 문제를 생각해야만 한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교회는 두 가지 측면을 놓쳐서는 안 된다. 우선적으로 교회의 본질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는 것과 시대적 변화 속에서 과감히 변화해야 하는 부분을 변화시켜야 한다. 이를 망각하여 교회의 본질을 잃어버린 채 변질되어버린 교회나 시대적 변화를 인식하지 못하고 변화의 시기를 놓쳐버린 교회들은 결국 쇠퇴기를 맞이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승찬 52. 62

이러한 온라인 교회의 모습과 관련하여 **윤영훈** 교수는 한국에서 온라인 교회가 세워진다면 두 가지 방식으로 표현될 것이라 주장한다. 먼저는 기존 교회가 온라인 **지교회 방식**으로 온라인에 접속한 이들이 교회의 신앙생활 콘텐츠를 제공 받는 형식의 교회이다. 둘째는 ‘가나안 성도’ 및 교회에 등록을 하지 않고 다니는 ‘안개성도들’과 같은 특정 성도들을 대상으로 하여 **독립적인 온라인 교회**가 세워지는 방식이다. 136) 여기서 전자의 경우 온라인 교회는 지교회와의 접점을 만들어 하나의 결속을 위한 방편으로 여겨질 가능성이 높으며 이는 결국 지교회를 위해 세우기 위한 온라인 교회로서 존재하게 된다. 그러나 이러한 지교회 중심의 사고에서 벗어나 좀 더 확장된 개념으로서의 온라인 교회로의 시도와 도전이 필요한데 지교회 성도들뿐만이 아니라 가나안 성도, 안개성도, 비그리스도인들을 위해 열려 있는 공간으로서의 온라인 교회가 분명 필요하다. 이어 그와 관련된 해외 및 국내 교회 사례들을 살펴보고 앞으로 한국 교회가 준비해야 하는 온라인 사역에 대한 구체적 인 방법들을 논의하도록 하겠다. 이승찬 53. 63]

4. . 오프라인과 온라인의 융합을 모색하는 교회들의 사례 이승찬 53. 63

“1. 라이프 처치 – 복음을 온라인 플랫폼에 담아낸 교회”

라이프처치는 1996년 크레이그 그로쉘(Craig Groeschel) 목사에 의해 작은 차고를 개조하여 시작된 교회이다. 이승찬 54. 64

많은 미국의 교회 전문가들은 라이프처치의 최대 성장치가 윌로우크릭 교회나 새들백교회의 규모와 비슷한 약 2만 명 정도로 보았는데 이 추측은 예상을 벗어났다. 현재는 매주 약 7-8만여 명의 성도가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다. 137)

137) 윤영훈, “포스트코로나 시대 온라인 교회의 가능성에 대한 연구”, 『대학과 선교 | 제45집』, 212쪽.

라이프처치는 온라인 예배 를 위해 자체 플랫폼을 개발하여 사용하고 있으며, 이 플랫폼 안에는 예배 스트리밍과 함께 실시간 채팅창, 노트, 성경보기 시스템, 예배 스케줄 등이 제공되고 있 다. 141) 무엇보다 주의 깊게 살펴볼 사역이 화면 맨 아래에 있는 실시간 기도 요청(Request Prayer) 란이다. 일방적인 예배 방식에서 실시간 참여적 예배로 변화시켰는데 온라인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이들이 자신의 삶의 상황을 솔직하게 나누고 기도요청을 할 수 있게 함으로써 교회는 세상을 향해 닫힌 공동체가 아니라 항상 열려있으며 온라인에 접속한 모든 이들을 환영해주고 그들의 문제를 위해 함께 기도해주는 교회 공동체로서의 아름다운 이미지를 형성해나가기 시작한 것이다. 즉, 교회는 관계 중심의 공동체라는 것을 오프라인뿐만 아니라 온라인에서도 바로 적용하였던 것이다. 이를 위해 온라인에서 섬길 수 있는 자원봉사자들을 세우고 훈련시키는 사역이 선행되었으며 이를 통해 온라인 예배는 더 폭발적으로 성장할 수밖 에 없었다. 142) 140) 이상훈, “미국의 온라인 교회(2), 라이프처치, 하나님 나라 복음을 디지털에 담다 『목회와 신학』 2021.2월호. 84쪽. 141) 위의 책, 84쪽. 142) 위의 책, 85쪽.

이뿐만 아니다. 라이프처치는 ‘온라인 플랫폼’을 전 세계에 있는 교회에 무료로 제공하여 교회의 크기 유무와 상관없이 자신의 교회에 맞는 비디오 스트리 밍, 채팅, 실시간 기도, 무료 성경 등이 탑재되어 있는 플랫폼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전 세계에 있는 교회에 예배, 설교, 신앙교육 및 훈련, 소그룹과 관련 된 5만여 개 이상의 동영상과 문서 자료를 제공한다. 144)

143) 이상훈, “미국의 온라인 교회(2), 라이프처치, 하나님 나라 복음을 디지털에 담다 『목회와 신학』 2021.2월호. 86쪽.

144) 위의 책, 86쪽. 145) 위의 책, 87쪽.

133) 국민일보, 2018.2.19. 기사 발췌. 134) “새로운 세계 메타버스, 위기인가 기회인가”, 『아이굿뉴스, 2021.6.28』 135) 위의 기사 발췌.

“2) 새들백처치(Saddleback Church) - 온라인 소그룹으로 연결된 교회” 이승찬 56. 66

새들백교회는 이미 사회가 디지털 문화로 변화되는 문 화적인 흐름을 인식하고 오프라인 사역을 온라인 사역에 런칭하고자 여러 방법들 을 연구하고 고안해냈다. 이를 통해 교회 내 예배, 교육, 훈련, 교제, 상담, 섬김, 봉사와 같은 사역들 모두가 온라인에서도 가능하다는 것을 점차 깨닫게 되었다. 온 라인 접속을 통해서도 성도들은 교회 공동체의 비전과 사명을 공유하며 그 안에서 훈련과 봉사를 통해 영적 성숙까지도 이룰 수 있음을 확신했다. 147) 146) 이상훈, “미국의 온라인 교회(1), 새들백교회 : 비전과 가치를 온라인으로 실 현하다. 『목회와 신학』 2021.1월호. 147) 위의 책. 100쪽.

무엇보다 새들백교회는 온라인에 연결된 사람들에게 ‘디지털 커넥션 카드 (Connection Card)’를 제공하여 교회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루트를 마련하였다. 커넥션 카드의 내용을 살펴보면 처음 교회에 접촉한 사람들의 필요(need)를 파악 하여 그 다음 단계로 연결시켜주는 매우 핵심적인 질문들로 이루어져 있다.

148)

이 카드를 작성한 사람은 자원봉사자들 혹은 사역자들에게 연결된 후 영적 인 도움을 받게 되는데 가장 먼저 교회의 비전과 목적, 역사에 대해 배우게 된다. 이러한 교육은 zoom 혹은 화상을 통해 교육되며 이 교육을 수료하여야만 멤버십 자격이 주어진다. 149)

149) 이상훈, “미국의 온라인 교회(1), 새들백교회 : 비전과 가치를 온라인으로 실현하다. 『목회와 신학』 2021.1월호, 101쪽.

특별히 새들백교회는 9천여 개나 되는 소그룹이 존재하며, 이 소그룹을 통 해서 성도들은 소속감과 영적 성숙을 경험한다. 소그룹 사역이 활발하게 운영되는 이유는 소그룹 모임을 최대한 쉽고 가볍게 만들어 운영함과 동시에 소그룹 리더를 세울 때에 리더로서의 부담감을 줄여주는 일에 있다. 일반적으로 여러 교회 내 소 그룹 리더는 훈련반을 마친 성도가 리더가 되어 교재를 기반으로 성경을 가르치는 ‘마스터 교사 모델’(Master-Teacher Model)이다. 이러한 모델은 훈련 받은 리더 가 정보를 일방적으로 전달하고 학생들이 그 정보를 습득하는 모델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새들백교회가 추구하는 소그룹 리더의 모습은 누구나 리더가 될 수 있고 인도할 수 있는 ‘촉진 모델’(Fucilitation Model)이다. 이 모델에서 리더의 역 할은 서로 간에 대화를 도모하며 함께 답을 찾아갈 수 있도록 안내하는 역할이라 고 볼 수 있다.150) 따라서 자칫 일방적인 강의로 지루해지고 느슨해질 수 있는 온 라인 소그룹에서 질문과 대답을 주고받는 형식의 소그룹 방식은 한국 교회 온라인 소그룹의 방향성을 어떻게 잡아야 할지에 대한 좋은 방안으로 보인다. 이승찬 58. 68

150) 케빈 리, 『온라인 사역을 부탁해』, 72-73쪽.

결론적으로 새들백교회의 온라인 사역은 결코 오프라인 사역과 대립되거나 대체되는 사역이 아니라 온라인 사역을 통해서 오프라인 사역은 더욱 확장되어 간다. 이승찬 58. 68

3) 오프라인과 온라인의 융합을 모색하는 교회들 (국내 교회 사례) 이승찬 59. 69

(1) 만나감리교회 – 단계적인 변화 속에 세워진 올라인(All-line) 교회

올라인(All-line)이란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함께 병행하는 용어로서 두 가지 이상이 혼합되어 하나가 되어 시너지 효과를 이룬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으로 장로회신학대학교 기독교교육학과 신형섭 교수가 자신의 여러 논문에서 온라인과 오프라인 사역의 융합을 의미하는 올라인(All-line) 사역이란 신조어를 사용하였으며, 충신교회 이전호 목사와 만나감리교회 김병삼 목사도 올라인(All-line) 목회에 대한 용어를 교회 안에 적용하여 교회 비전을 성도들과 함께 공유하며 사역을 재배치하는 작업들을 진행해오고 있다. 이승찬 64. 74

만나감리교회에 대하여 이승찬 목사는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만나감리교회는 교회중심적인 교회를 넘어 선교 중심적인 교회를 지향해왔으며 건물에 한정된 교회가 아닌 세상과 밖을 향한 교회를 세워왔다. 그로 인해 코로나19 팬데믹이 갑자기 닥친 상황 속에 서도 만나교회는 당황하지 않고 ‘**미디어교회**’를 통해 온라인으로 온 성도들이 예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왔다. 이승찬 59. 69

‘미디어교회’는 4단계를 거쳐 변화, 발전해왔다. 먼저 첫 번째 단계는 2009 년부터 선교적 교회론에 근거하여 예배 실시간 스트리밍을 실시하여 찾아오는 성도들만이 아닌 예배를 드리기 어려운 환경 속에 있는 성도들에게 먼저 다가가는 서비스를 제공하였다. 두 번째 단계는 2018년 4월, ‘미디어교회’라는 독립된 교회를 만들어 실시간 예배 스트리밍 제공뿐만이 아니라 ‘성도들을 돌보는 시스템’까지 갖추고자 하였다.154) 그 때 추구했던 비전이 ‘복음을 교회 안 담장에만 가두지 않고, 교회 밖으로 넘어가게 하자는 외침’이었다. 세 번째 단계는 교회 안에 ‘미디어 동산’이라는 새로운 교구를 만들어 예배와 목양에 소외된 성도들을 돌보는 사역을 감당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단계는 ‘올라인(All-line) 교회’의 출범인데 그동안의 사역들이 오프라인 교회의 대안이나 선교적 교회로의 모습이었다면 이제는 교회 전체 조직이 온라인 역량을 갖추는 단계로서 발전되었고 지금도 계속 연구되고 진행 중에 있다. 155)

155) 김병삼 외 지음, 『올라인 교회』, 31쪽.

가장 큰 변화의 중심에는 예배가 있었다. 김병삼 목사는 “다가올 시대의 교회는 사람들을 모이게 할 뿐만 아니라 흩어져서도 예배할 수 있는 공동체로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156) 그는 이어 요한복음 4장 말씀을 들어 ‘예배는 장소의 문제가 아니라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것’이라 하여 예배자들의 예배드리는 장소와 환경, 모습이 달라도 하나님께서는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믿음의 예배를 받아주신다고 확신하였다. 이승찬 60. 70

(2) 창동염광교회 – 예배와 목양에 집중한 교회” 이승찬 60. 70

‘주일’에 대한 개념을 확장하여 코로나 이전에는 주일에 1-5부 예배를 드리던 것을 토요일부터 주일에 걸쳐 1-7부 예배 로 개편한 것이다.160) 토요일에 드리는 예배를 토요예배라 지칭하지 않는데 이는 주일에 드리는 예배와 토요일에 드리는 예배를 구분하지 않기 위함이었다. 161)

158) 포스트코로나와 목회연구학회, 황성은, 『뉴노멀 시대의 목회를 위한 교회 체 질 변화 제안』, 199쪽.

161) 위의 책, 203쪽.

목양적인 측면에서는 비대면 만남을 위해 zoom이라는 프로그램 사용법을 안내하였다. 163) 특히 젋은 부부 교구에서 자녀가 어려 코로나 이전에는 모임에 참 석하기 어려웠지만 오히려 온라인으로 모이기 시작하자 참석률의 증가를 볼 수 있 었으며 모임에 대한 긍정적인 피드백들이 나오기 시작했다.

163) 위의 책, 205-206쪽.

V. 기획과 실천” 이승찬 62. 72

A. 온라인에서 올라인(All-line) 사역으로의 변화

이처럼 우리들은 온라인 사역을 함에 있어서 아만다의 의심처럼 ‘과연 디 지털 공간 안에서 거룩한 것을 경험할 수 있는가?’란 질문을 던져보아야만 할 것 이다. 이승찬 62. 72

이에 대한 답변으로 예레미야 23장 24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사람이 내게 보이지 아니하려고 누가 자신을 은밀한 곳에 숨 길 수 있겠느냐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냐’라고 기록되어 있듯이 하나님께서는 천지에 충만하신 분이시며 무소부재의 하나님이심을 증거하 고 있다. 따라서 하나님의 임재는 디지털 안에도 가능하며 그 안에서도 거룩한 영적 체험이 가능함을 말해준다. 이승찬 63. 73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소부재의 무한성을 지니신 하나님께서는 유한한 몸을 가진 존재로서의 사람과의 만남을 요구하신다. 이는 결국 온라인의 한계성을 의미 한다. 사람은 디지털 속에 있는 가상의 존재를 넘어 현실 가운데 있는 한 개인의 몸(body) 167)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의 역사와 연결되어야만 하며 디지털 안에서 이루어지는 사람과 사람 간의 만남도 결국 실재적 만남으로 연결되는 것을 지향점으로 삼아야 한다. 이승찬 63. 73

167)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몸은 신비하다. 몸에는 시청각 및 미각, 후각, 촉각 등 오감을 느낄 수 있는 감각을 내재하고 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이며 디지털 안에서 구현하기 힘든 것 실재론적 감각 요소들로 인해 결국 사람은 ‘몸’을 중요 시해야 한다. 디지털 안에 들어가서 활동하는 모든 영역조차 ‘몸’을 벗어나 작동할 수 없는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 이승찬 63. 73

성석환 교수는 이와 관련하여 디지털 교회론에 대해 세 가지로 나누어 설 명한다. 먼저 디지털 온라인 교회의 역할이 오프라인 교회를 보완(supplement)하 는 것으로 보는 견해이다. 반대로 오프라인 교회와는 다른 대안적(alternative/sub stitute) 신앙 양식으로 여기는 견해이다. 마지막 세 번째는 두 견해를 상호보완적 으로 이해하려는 견해이다. 169) 대부분의 학자들과 목회자들은 목회신학적 안정성을 위해 세 번째 견해를 지지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디지털 교회론이 물리적 시공 간에 존재하는 교회와 교인만을 ‘원본’으로 삼는 기독교 플라톤적 이원론을 경계해야 한다고 그는 팀 허칭스(Tim Hutchings)의 주장을 들어 설명한다. 170) 169) 성석환, “교회론의 디지털 실존적 재구성을 위한 가능성 연구 : 디지털 ‘하나 님의 선교(Mission Dei)’를 향하여”, 『선교와 신학, 55 (2021)』, 167쪽. 170) 위의 책, 168쪽.

이는 다른 말로 디지털 안에서의 모든 가능성의 활동들을 원본 안에서 제한해서는 안 되 며 디지털 안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 선교(Missio Dei)로서의 가능성을 열어 두어야 함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상호보완적 견해를 필자는 이 논문에 서 올라인(All-line)이란 개념으로 표현하여 설명하고자 한다.

올라인(All-line)이란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함께 병행하는 용어로서 두 가지 이상이 혼합되어 하나가 되어 시너지 효과를 이룬다는 뜻을 담고 있는 하이브 리드(hybrid)란 용어와 매우 비슷한 의미를 담고 있다. 이승찬 64. 74 장로회신학대학교 기독교교육학과 신형섭 교수는 자신의 여러 논문에서 온라인과 오프라인 사역의 융합을 의 미하는 올라인(All-line) 사역이란 신조어를 사용하였으며, 충신교회 이전호 목사와 만나감리교회 김병삼 목사도 올라인(All-line) 목회에 대한 용어를 교회 안에 적용 하여 교회 비전을 성도들과 함께 공유하며 사역을 재배치하는 작업들을 진행해오 고 있다. 이승찬 64. 74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올라인(All-line) 사역이란 오프라인에서 이루어지는 사역들을 온라인화171)하는 작업을 거친 후 그것을 성도들과 함께 공유하며 온 라인에서 형성된 사역들을 또다시 오프라인 사역으로 연결, 확장시키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는 아날로그와 디지털 플랫폼 어느 한 쪽에만 치우쳐서는 안 되며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조화를 이루는 균형적 목회의 모습으로 표현되어야만 한다. 이승찬 64. 74

이와 관련하여 소망교회 조성실 목사는 “하이브리드 교회172)란 모든 사람 들을 포함할 수 있는 장소(place)를 제공하며 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 건강의 어려 움, 대면장애 등을 갖고 있는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초청하는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며 모든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여 성도들에게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도록 하고 하나님을 향한 예배에 참여시키고, 그리스도의 몸의 한 지체로서 기능하도 록 한다.”고 하였다. 173) 173) 조성실, “코로나 팬데믹 극복을 위한 교회와 실천신학”, 『한국실천신학회 제 81회 정기학술대회』 이승찬 65. 75

(3) 충신교회 올라인(All-line) 사역 소개 이승찬 65. 75

1. 예배의 변화 : 온오프라인이 결합된 올라인(All-line) 예배로

충신교회는 코로나 상황에 따른 정부의 지침의 변화에 따라 오프라인 예배를 드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온라인 예배 제공을 멈추지 않았다. 이승찬 66. 76

2. 소그룹의 변화 : : Zoom 심방을 통한 성도간의 교제 이승찬 67. 77

코로나19의 영향 속에서 교회가 역점을 두어야 하는 부분 중 하나가 교제권 과 공동체성을 확보하며 양들에 대한 돌봄과 성장 환경을 제공하는 것이다.175) 이 러한 과제 속에서 충신교회 목회자들은 ‘zoom이란 도구를 적극 활용하여 온라인 소그룹 모임’에 대한 가능성을 발견하였다. 이승찬 67. 77

특별히 남녀선교회에서의 zoom 월례회는 매우 놀랄 만한 목회적 사건이었 다. 은퇴하신 고령의 권사님, 집사님들도 다같이 zoom 활용법을 배워 그동안 대면 하여 만나지 못했던 상황에서 벗어나 zoom이라는 온라인 공간 속에서 함께 예배 드리며 회의를 진행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모두가 안 될 것처럼 생각했지만 이 제는 오히려 그들이 zoom 소그룹 모임을 기다리며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참여자가 된 것이다. 이승찬 68. 78

또한 zoom은 소그룹 지역 모임뿐만 아니라 심방에서도 변화를 일으켰다. 충신교회 부교역자들은 성도들의 돌봄을 위해 전화심방 및 zoom을 통한 다중 화 상 심방을 진행하는 가운데 영적인 역동이 일어날 수 있음을 발견하였고 그동안 얼굴을 대면하여 바라보지 못한 성도들의 얼굴을 보고 말씀과 기도를 전할 수 있 는 시간이 되었다. 나아가 지구역 리더십 및 교구 식구들의 영성 훈련을 위해 각 교구 목회자들은 매주 정해진 성경 통독 스케쥴에 따라 개관 및 묵상 영상을 제작 배포하여 온라인 사역을 강화하였다. 평신도훈련원 양육 사역은 유튜브 온라인으로 제공되었으며 그동안 시간적으로 제약받았던 많은 성도님들이 참여하여 기존보다 훨씬 더 많은 서리 집사들이 임명되었다.177

3. 각 부서별 올라인(All-line)사역 소개 (전도사역팀, 해외선교팀, 개척교 회지원팀, 경건훈련팀, 평신도훈련지원팀, 일터사역팀, 코칭사역팀, 새가족 부) 이승찬 69. 79

먼저 전도사역팀은 총 4차에 걸쳐서 팀원들과 함께 전도에 참여 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였다. 1차 시기였던 2020년도 3월부터 전도사역팀 담당목회자는 매일 사도행전 1장씩(주일 제외) 주제에 맞춘 영상을 제작하여 팀원들과 공유하였다. 팀원들은 매일 정해진 말씀을 함께 읽고 묵상함과 동시에 제작된 영상을 보면서 코로나 상황에 대한 두려움과 걱정을 말씀으로 이겨내고자 하였다. 178) 이어 2차 시기였던 2020년 하반기에는 코로나19가 장기화됨에 따라 전도대 모임을 유 튜브 영상으로 제공하였고 로마서 말씀을 통해 ‘복음’에 대해 함께 깊이 묵상하여 개인의 삶에 실천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다. 전반기와 다른 점은 영상의 수준과 분 량(15~20분)을 늘려 기존 전도대 모임시간(수요일 오전 10시 반)에 맞추어 영상을 실시간으로 송출하였다.179) 3차 시기였던 2021년 전반기에는 zoom을 활용하여 실 시간으로 전도대원들과 함께 수요일 오전 10시 반부터 12시까지 모임을 가지고 zoom 내 소그룹 모임을 가져 기존 오프라인 모임처럼 조별 모임을 진행할 수 있 도록 하였다. 4차 시기였던 2021년 하반기에는 zoom을 통한 모임과 더불어 11월 10일에는 온라인 생명나무축제를 온라인으로 진행하였다. 이슬비전도편지 발송 및 카톡 카드전도, 오이코스 전도지 온라인 활용자료 제공, 담임목사님의 설교영상을 통한 전도, 올라인(온/오프라인) 주일에배 초청 등을 통해 전도를 진행했다. 온라먼저 전도사역팀은 총 4차에 걸쳐서 팀원들과 함께 전도에 참여 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였다. 1차 시기였던 2020년도 3월부터 전도사역팀 담당목 회자는 매일 사도행전 1장씩(주일 제외) 주제에 맞춘 영상을 제작하여 팀원들과 공 유하였다. 팀원들은 매일 정해진 말씀을 함께 읽고 묵상함과 동시에 제작된 영상을 보면서 코로나 상황에 대한 두려움과 걱정을 말씀으로 이겨내고자 하였다. 178) 이어 2차 시기였던 2020년 하반기에는 코로나19가 장기화됨에 따라 전도대 모임을 유 튜브 영상으로 제공하였고 로마서 말씀을 통해 ‘복음’에 대해 함께 깊이 묵상하여 개인의 삶에 실천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다. 전반기와 다른 점은 영상의 수준과 분 량(15~20분)을 늘려 기존 전도대 모임시간(수요일 오전 10시 반)에 맞추어 영상을 실시간으로 송출하였다.179) 3차 시기였던 2021년 전반기에는 zoom을 활용하여 실 시간으로 전도대원들과 함께 수요일 오전 10시 반부터 12시까지 모임을 가지고 zoom 내 소그룹 모임을 가져 기존 오프라인 모임처럼 조별 모임을 진행할 수 있 도록 하였다. 4차 시기였던 2021년 하반기에는 zoom을 통한 모임과 더불어 11월 10일에는 온라인 생명나무축제를 온라인으로 진행하였다. 이슬비전도편지 발송 및 카톡 카드전도, 오이코스 전도지 온라인 활용자료 제공, 담임목사님의 설교영상을 통한 전도, 올라인(온/오프라인) 주일에배 초청 등을 통해 전도를 진행했다. 온라 인 생명나무축제에 관한 일정은 아래와 같다.인 생명나무축제에 관한 일정은 아래와 같다.이승찬 69. 79

178) 티타임사도행전 https://www.youtube.com/watch?v=C0kGSY8sLWI&list=PLPa74OI666ifhJuW2GG6H7NI0C\_ KFQuuS&index=27

179) 티타임로마서 https://www.youtube.com/watch?v=Jw3\_tqXqXNI&t=796s

해외선교팀은 2021년 8월 1일부터 15일까지 매주일 3주간 ‘랜선 비전트립’(스리랑카, 캄보디아, 몽골)을 진행하였다. 코로나19로 인해 해외로 갈 수 없는 상황 속에서 현지에 계신 선교사님들과 현지 목회자들과 성도들을 zoom으로 만날 수 있는 시간이 되었다. 특별히 현지인들의 간증과 특송을 듣는 시간이 있었는데 비록 온라인상이었지만 함께 참여한 성도들에게 전해지는 감동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컸다. 그 외에도 2021년도 하반기에는 해외선교사를 위한 중보기도 모 임을 매월 마지막 주 토요일에 진행하였다. 크로아티아 김경근 선교사, 룩셈부르크 전영광 선교사, 카자흐스탄 김형욱 선교사의 선교지 소식을 전해 듣고 선교사님들 을 위해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승찬 70. 80

개척교회지원팀은 2020년 7월부터 12월까지 매월 첫 주 토요일에 유튜브를 통해 온라인골방기도회를 실시하였다. 빌립보서 말씀을 토대로 어떠한 환경180)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과 온유의 마음으로 자족하는 믿음에 대해 나누고 뜨거운 찬양과 말씀과 기도를 통해 팀원들의 신앙과 열정을 잡아주며 개척교회 목사님들과 가정을 위해 중보하는 시간을 가졌다. 2021년 상반기에는 개척교회지원 팀이 섬기는 개척교회 목사님들을 zoom에 초대하여 목사님들의 말씀을 듣는 시간을 가졌는데 일방적으로 도움을 주는 것이 아닌 목사님들의 말씀을 통해 오히려 개척교회지원팀이 힘을 얻고 더 깊은 관심을 갖고 서로를 위해 중보하는 시간이 되었다. 이승찬 70. 80

경건훈련팀은 2020년 하반기에 ‘4복음서 성경통독’ 및 ‘요한복음 필사대행 진’을 진행하였다. 이를 위해 마태,마가,누가,요한복음서와 관련된 개관영상을 제작 하였고 영상을 통해 성도들이 쉽게 말씀을 통독할 수 있도록 하였다. 2021년 3/14 ~ 5/9일까지 매주일 신약성경통독을 zoom으로 실시하였다. zoom 화면공유를 통해 매주 각 권 개관을 ppt로 공유했으며 유튜브에 올라와 있는 1.4배속 신약 통독 콘텐츠를 사용하여 기간 안에 신약통독을 마칠 수 있었다. 2021년 10/3 ~ 11/28일까지 매주일 모세오경통독을 zoom으로 진행하였는데 목회자 주도하에 진행되었던 상반기 온라인 통독과는 달리 팀장 주도하에 진행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승찬 61. 71

평신도훈련지원팀은 2020년 하반기부터 현재까지 세례, 성숙, 은사반 코스를 온라인 유튜브로 송출하여 수강하도록 하였다. 15분에서 20분 분량의 잘 짜여 진 주제 영상을 다 본 후 강의 소감을 답글로 달아 출석 여부를 확인하였다. 수료 후 zoom에서 온라인 수료식을 진행하였고 온라인 수료증을 제작하여 수료자들로 하여금 소장할 수 있도록 하였다. 2020년 하반기에는 평신도훈련원을 통해 배출된 서리집사가 100여 명이나 되었고, 2021년에도 약 70여 명의 성도가 서리집사로 임명되었다. 이승찬71. 81

일터사역팀은 봄, 가을학기로 나누어 총 16주 과정의 ‘일과 영성학교’를 진행하였다. 외부 전문 강사의 참여로 인해 수준 높은 강의가 진행되었으며 강의 후 참여자들의 나눔 시간을 통해 더욱 풍성한 일터학교가 되어왔다. 기존 오프라인 과 정을 온라인 과정으로 변환하여 zoom으로 진행했는데 매주 운영진이 교회 스튜디오에서 전체 모임을 준비한 후 온라인으로 진행을 하면 참여자들과 강사님들은 각 자의 장소에서 PC나 스마트기기로 접속하여 강의 내용과 소그룹 나눔에 참여할 수 있었다. 특별히 소그룹 나눔 시에도 매우 잘 훈련된 조장과 함께 5명씩 나눔을 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는데 이 부분에서 매우 긍정적인 피드백이 있었다. 이승찬 71. 81

코칭사역팀은 2020년 7월부터 19명의 팀원들을 아시아코칭센터에 위탁하여 한국코치협회 인증자격과정인 KAC 교육과정에 참여하도록 하였다. 이론 교육 20시간, 코칭실습 50시간을 2021년 2월까지 완료하였으며 2021년 4월 팀원 모두 KAC 자격증을 취득하였다. 이렇게 진행할 수 있었던 데에는 코칭사역팀의 모든 훈련이 zoom을 통해 온라인상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팀원들은 매주 화요일 저녁마다 zoom 상에서 만나 훈련을 받았으며 이후 실습과 자격시험 도 온라인으로 진행하여 자격증 취득할 수 있었다. 이승찬 71. 81

새가족부는 그동안 새가족이 오면 8주간의 일대일만남을 통해 교회에 정착 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운영되어왔다. 대면만남이 어려워지자 일대일만남도 온라 인으로 전환하여 새가족 만남을 zoom, 카카오라이브톡, 전화사역으로 진행하게 되었고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지난 1년 간 새가족 등록 대상자 97%가 온라인 일 대일 만남 교육을 할 수 있었다. 기존에 운영해오던 일대일 도우미 사역 세미나 및 새가족 환영회도 모두 온라인으로 전환하여 사역에 어려움이 없도록 하였다. 교회 에 처음 나온 새가족에게는 대면 만남이 더욱 어려울 수도 있었는데 온라인으로 만날 수 있어서 더 안전하고 편안한 분위기를 느꼈다는 피드백이 주를 이루었다. 또한 단계 완화 시에는 오프라인과 온라인 만남을 병행하는 올라인(All-line) 일대 일 양육을 통해 탄력적인 만남이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이승찬 72. 82

“5. 평가 및 정리” 이승찬 73. 83

대면할 수 없는 성도들에 게 찾아가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교회는 온라인 예배를 송출하고 온라인 사역 을 시행할 수밖에 없었다. 이는 충신교회 안에 과감한 도전이자 변화였다. 온라인 사역이 시작되자 이에 대한 염려와 걱정을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었다. 언제까지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며 온라인으로 성도들을 만날 것인가?라는 질문도 계속 던져 졌다. 본인도 똑같은 질문을 스스로에게 수백 번, 아니 수천 번은 던졌을 것이다. 하지만 모든 것이 막혀진 상황 속에서도 결국 온라인 사역 때문에 교회 내 숨통이 트이기 시작했으며 목회자와 성도, 성도와 성도들 간에 완전한 단절을 막을 수 있 었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이제는 온라인에 익숙해진 목회자와 성도들 모두가 다시금 오프라인으로 만나기를 준비해야 하는 시점이다. 이승찬 73. 83

C. 올라인(All-line) 사역을 위해 교회가 준비해야 하는 영역들

1. ‘복음’의 본질을 ‘올라인(All-line)’이라는 새로운 그릇에 담기 이승찬 74. 84

2. 올라인(All-line) 평신도 사역자 양성하기 이승찬 75. 85

3. 올라인(All-line) 전문 부서 설치 및 전문 사역자 세우기 이승찬 75. 85

4. 올라인(All-line) 디지털콘텐츠 연구 및 계발하기 이승찬 76. 86

5. 올라인(All-line) 사역에 따른 교회예산 재편성하기

6. 소셜 미디어를 적극 활용하기 이승찬 77. 87

Ⅵ.평가

A. 소그룹 리더십들이 바라본 온라인 사역에 대한 평가 (설문) 이승찬 79. 89

2021학년도 장로회 신학대학교 목회전문대학원 사회복지 박사 과정 논문 진행 중에 있는 이승찬 목사입니다. 이번 논문의 주제로 (포스트 코로나 한국 교회 온라인 사역 방법론에 관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제가 현재 시무하고 있는 충신교 회 온라인 사역에 관한 기초 자료를 토대로 목회 데이터를 취합하 고자 합니다. 3-5분 정도 소요되는 아주 짧은 설문이오니 꼭 참여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번 충신교회 성도님들께 진심으 로 감사드립니다.

충신교회 5교구장 이승찬 목사 드림. 이승찬 79. 89

\*\*”성육신적 모델에 근거한 온라인 선교” 최원진 225. 23

“최근 선교계에 이슈가 되고 있는 것 중의 하나가 온라인을 통한 선교가 어디까지 가능한가 하는 것이다. 선교사가 구태여 위험을 무릎쓰고 선교지에 가지 않아도 이제 인터넷을 통해서도 복음을 전할 수 있고, 성경공부와 제훈련이 가능해졌기 때문이다. \*\*최원진 225. 23

“그러나 예수께서 친히 보여 주셨던 그 성육신 모델을 우리는 따라가야 한다. 최동규는 “성육신적 선교는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선교를 위해 부르심을 받고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복음을 들어야 할 사람들의 문화 속으로 들어가 그들과 하나가 되어고 그들이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경험하도록 만드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한다. 최원진 225, 최동규, \*성육신의 관점에서 본 선교적 교회의 상황화, 『선교신학』 42(2016); 301,

“데이빗 군더센은 코로나 이후 교회로 돌아와야 하는 이유 10가지를 이야기하면서 교 회의 본질적 사명, 즉 선교 때문에 성도들은 교회로 다시 돌아와야 45 최동규, “성육신의 관점에서 본 선교적 교회의 상황화”, 「선교신학」42(2016): 301. 226 l 복음과 선교 제52집 한다고 주장한다.46 그는 “우리의 모임은 궁극적으로 하나님 나라 를 맛보는 모임으로, 온라인 생중계 방송이나 줌(Zoom)으로 하는 모임과는 본질적으로 거리가 있다. 그것은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얼굴 대 얼굴’로 만나는 것이며 성도들과 천사들이 충만함 가운데 경배하는 모임(히 12:22-23; 계 22:4)”이라고 말한다.47

그는 “우리의 모임은 궁극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맛보는 모임으로, 온라인 생중계 방송이나 줌(Zoom)으로 하는 모임과는 본질적으로 거리가 있다. 그것은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얼굴 대 얼굴’로 만나는 것이며 성도들과 천사들이 충만함 가운데 경배하는 모임(히 12:22-23; 계 22:4)”이라고 말한다.47

\*\* 선교의 패러다다임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해야 한다. 최원진 227. 25

송병락은 전승하는 리더의 조건을 ‘패전시문’이라고 하는 4단 계로 정리해서 설명한다.48 즉, “패러다임 변화의 파악, 대응전략의 수립, 전략의 실행을 위한 시스템의 개발, 시스템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게 하는 독창적 문화를 개발”하라는 것이다. 48 송병락, 『전략의 신』 (서울: 샘앤파커스, 2015), 205-206.

특별히 현대 사회는 제도종교보다는 조직이나 집단 의례가 없이 개인의 삶에 궁 극적인 의미를 부여하는 ‘보이지 않는 종교’들이 출현하고 있다.50

존 스토트(John Stott)는 “교회는 하나님이 나중에 생각해 내신 것이 아니다. 교회는 역사의 우연이 아니다. 오히려 교회는 하나님의 새로운 공동체이다. 영원한 과거 에 마음에 품으셨고, 역사 속에서 실행하시며, 영원한 미래에 완성 하실 하나님의 목적은 단지 고립된 개인들을 구원해서 우리의 고독 을 영속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교회를 세우시는 것, 즉 그분의 영광을 위하여 세상으로부터 한 백성을 불러내신다”고 말한다.53 한 국교회는 그런 교회 문화를 개척해 나가야 한다. 53 John Stott, Living Church, 신현기 옮김, 『살아있는 교회』 (서울: IVP, 2009), 23-24.

예를 들어, 1970년대 중국 정부가 선교사를 모두 추방하면서 패배감에 빠진 서구교회가 새로운 돌파구로 제시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교’(Missio Dei) 개념이다. 즉, 선교사가 아니라 하나님이 선교의 주체라는 것이다. 그 이후 한국교회는 오래전부터 선교사 출구전략과 재배치를 논의해 왔지만 그것을 구체화 시키지는 못했다. 그런데 이번 코로나로 인해 자연스럽게 그 문이 열린 것이다. 게다가 국내에 들어와 있는 이주민 사역에 현장 선교사들이 필요 하다는 인식을 한국교회가 더 많이 갖게 되었다. 최원진 229. 27

이제는 선교사가 직접 사역하는 것이 아니라 현지 사역자들이 주도적으로 전도하고 교회를 개척하도록 격려하는 촉매제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 최원진 2229. 27

이제는 선교사들이 직접 선교지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교 회를 개척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비대면 사역의 활성화를 통해 현 지 지도자를 훈련하고 교육하는 일도 감당해야 한다. 최원진 230. 28

\*\*역선교와 영역별 선교의 활성화 최원진 230. 28

근대 개신교 선교운동을 크게 해안선 선교 시대, 내지 선교 시 대, 그리고 미전도 종족 선교 시대의 3시기로 구분한다.최원진 230. 28

그러나 4차 산업혁명과 코로나로 인해 선교의 지형이 바뀌었다. 요즘은 선교의 제4기로 미전도 종족 선교 중심에서 종교 간 선 교, 세대별 선교, 이주민 선교, 난민 선교, 디아스포라 선교를 강 조한다. 선교의 형식과 방법도 직접선교보다는 간접선교, 대면보다는 비대면 사역에 더 집중한다.최원진 231. 29

47 “COVID-19 이후 교회로 돌아와야 하는 열 가지 이유 By David Gundersen,” http:// www.mytwelve.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269.

박해정,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온라인 예배에 관한 고찰”, 189-193.

최동규, \*성육신의 관점에서 본 선교적 교회의 상황화, 『선교신학』 42(2016); 301,

마샬 맥루한은 “전회로는 충주신경 계통의 확장”이라고 말한다. \*\* 뉴스미션, “서구 기독교의 네 가지 위기: 서구기독교의 위기와 동양적 정황 속의 위기 이해”, <http://www.goodnews1.com/news/news_view.asp?seq=10197>.

한국기독신문, “한국교회 1억뷰 교회는?: 한국교회 유튜브 최다 조회수는 ‘찬양’콘텐 츠”, http://www.kcnp.com/news/view.php?no=5335. 한국기독신문, “한국교회 1억뷰 교회는?: 한국교회 유튜브 최다 조회수는 ‘찬양’콘텐 츠”, <http://www.kcnp.com/news/view.php?no=5335>.

한국리서치, “[코로나19] 6차 인식조사(상황 인식, 언택트 사회 전망 등)”, https:// hrcopinion.co.kr/archives/15498.

47 “COVID-19 이후 교회로 돌아와야 하는 열 가지 이유 By David Gundersen,” http:// [www.mytwelve.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269](http://www.mytwelve.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269).

50 안선희, “예배 연구 주제로서의 ‘온라인예배 실행’”, 「신학과 실천」 69(2020): 25

53 John Stott, Living Church, 신현기 옮김, 『살아있는 교회』 (서울: IVP, 2009), 23-24.

2021학년도 박사학위논문 팬데믹 시대의 한국교회 올라인(All-line) 사역 방법론에 대한 연구 – 충신교회 올라인(All-line) 사역을 중심으로 –

장로회신학대학교 목회전문대학원 목회와사회복지 전공 이 승 찬

2. 학위논문 및 세미나 자료

이승찬, 『 팬데믹 시대의 한국교회 올라인(All-line) 사역 방법론에 대한 연구 – 충신교회 올라인(All-line) 사역을 중심으로 –』 장로회신학대학교 목회전문대학원 2021.

김은희, 『코로나19(Covid19) 상황에서 한국교회의 대처에 관한 연구 : 예배와 선 교를 중심으로』

개혁신학회, 2020 개혁논총 Vol. 53 No.-1

28) 포스트코로나와 목회연구학회, 윤영훈, “온라인 공간에 실험하는 새로운 교회”, 『비대면 시대의 ‘새로운’ 교회를 상상하다』 , 39쪽.

4. 기사 및 인터넷 자료

28) 포스트코로나와 목회연구학회, 윤영훈, “온라인 공간에 실험하는 새로운 교회”, 『비대면 시대의 ‘새로운’ 교회를 상상하다』 , 39쪽.

101) 황홍렬, 강성열, 김은혜 외 5명 공저. 『코로나19와 한국 교회의 회심 | 신학· 목회·선교의 과제』, 143쪽.

113) 김형길, “교회이미지 개선을 위한 마케팅커뮤니케이션전략에 관한 연구”, 『로 고스경영연구, 12(2)』, 167쪽.

114) 이병옥, “이웃과 소통하기 위한 새로운 선교패러다임의 모색 : 선포중심의 독 백적 선교에서 경청중심의 대화적 선교로 전환”, 『선교신학 제 54집』, 212쪽.

117) <http://www.newsnjoy.or.kr/news/articleView.html?idxno=303222>

126) 선양욱, “메타버스에서 신앙교육을?”, 『아이굿뉴스, 2021.10.27』

127) http://simonjenkins.com/projects/page/church\_of\_fools

128) 윤영훈, “포스트코로나 시대 온라인 교회의 가능성에 대한 연구”, 『대학과 선 교 | 제45집』, 212쪽.

129) 김승환, “온라인 교회와 디지털 신앙”, 『기독교사상 741, 2020.9』 , 41-42쪽

137) 윤영훈, “포스트코로나 시대 온라인 교회의 가능성에 대한 연구”, 『대학과 선교 | 제45집』, 212쪽.

143) 이상훈, “미국의 온라인 교회(2), 라이프처치, 하나님 나라 복음을 디지털에 담다 『목회와 신학』 2021.2월호. 86쪽.

144) 위의 책, 86쪽. 145) 위의 책, 87쪽.

146) 이상훈, “미국의 온라인 교회(1), 새들백교회 : 비전과 가치를 온라인으로 실 현하다. 『목회와 신학』 2021.1월호. 147) 위의 책. 100쪽.

149) 이상훈, “미국의 온라인 교회(1), 새들백교회 : 비전과 가치를 온라인으로 실현하다. 『목회와 신학』 2021.1월호, 101쪽.

150) 케빈 리, 『온라인 사역을 부탁해』, 72-73쪽.

155) 김병삼 외 지음, 『올라인 교회』, 31쪽.

158) 포스트코로나와 목회연구학회, 황성은, 『뉴노멀 시대의 목회를 위한 교회 체 질 변화 제안』, 199쪽.

169) 성석환, “교회론의 디지털 실존적 재구성을 위한 가능성 연구 : 디지털 ‘하나 님의 선교(Mission Dei)’를 향하여”, 『선교와 신학, 55 (2021)』, 167쪽. 170) 위의 책, 168쪽.

173) 조성실, “코로나 팬데믹 극복을 위한 교회와 실천신학”, 『한국실천신학회 제 81회 정기학술대회』

[온라인 목장 구축을 통한 교회 소그룹 활성화 방안 : 한소망교회 3속교회를 중심으로](http://www.riss.kr/search/detail/DetailView.do?p_mat_type=be54d9b8bc7cdb09&control_no=ca8c2a22b35f2f07ffe0bdc3ef48d419&keyword=%EC%98%AC%EB%9D%BC%EC%9D%B8%EA%B5%90%ED%9A%8C)

[이현일](http://www.riss.kr/search/Search.do?isDetailSearch=Y&searchGubun=true&queryText=znCreator,%EC%9D%B4%ED%98%84%EC%9D%BC&colName=bib_t) [장로회신학대학교 목회전문대학원](http://www.riss.kr/search/Search.do?isDetailSearch=Y&searchGubun=true&queryText=znPublisher,%EC%9E%A5%EB%A1%9C%ED%9A%8C%EC%8B%A0%ED%95%99%EB%8C%80%ED%95%99%EA%B5%90+%EB%AA%A9%ED%9A%8C%EC%A0%84%EB%AC%B8%EB%8C%80%ED%95%99%EC%9B%90&colName=bib_t) 2022 국내박사

[코로나 팬데믹 상황 속에서 선교적 교회의 교회론적 변화와 선교적 대응: 한국 교회 적용을 중심으로](http://www.riss.kr/search/detail/DetailView.do?p_mat_type=1a0202e37d52c72d&control_no=c78a182fdaba8f34b7998d826d417196&keyword=%ED%8C%AC%EB%8D%B0%EB%AF%B9%20%20%EC%84%A0%EA%B5%90)

[조해룡](http://www.riss.kr/search/Search.do?isDetailSearch=Y&searchGubun=true&queryText=znCreator,%EC%A1%B0%ED%95%B4%EB%A3%A1&colName=re_a_kor) [한국선교신학회](http://www.riss.kr/search/Search.do?isDetailSearch=Y&searchGubun=true&queryText=znPublisher,%ED%95%9C%EA%B5%AD%EC%84%A0%EA%B5%90%EC%8B%A0%ED%95%99%ED%9A%8C&colName=re_a_kor) 2021 [선교신학](http://www.riss.kr/search/detail/DetailView.do?p_mat_type=3a11008f85f7c51d&control_no=ccdb0515e7cd80ae) [Vol.62 No.-](http://www.riss.kr/search/detail/DetailView.do?p_mat_type=3a11008f85f7c51d&control_no=ccdb0515e7cd80ae&v_control_no=18b29ba8d183bf85)